

[종합·국제]

“사실상 승리” VS “무기력 드러났다”

<주류족>

민주당이 4·29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시흥시장 선거 등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류-비주류 간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지역 재선거에서 완패한 것은 그동안 보여준 민주당의 정치적 무기력에 대한 ‘뒷받침’ 민심의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당내 화합과 야당으로서의 비전 제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주류와 비주류 간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상당한 여진을 예고했다.

우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재보선 당선자 환영식을 갖고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실정에 균형을 잘 잡도록 주신 국민 명령”이라고 말해 사실상

민주 광주·전남 재보선 참패 여진 예고

정동영·신건 복당 놓고도 내홍 불가피

승리를 선언했다.

특히 일부 주류 층 인사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성적으로 말하면 A 학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한 뒤 “당내 비주류들은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등 승리감에 도취하는 모습을 보여 당내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호남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사실상 전패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잘못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 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한 것은 지도부가 지역의 현안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부재도 원인

방송에 출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이명박 심판이 국민들에게 넓게 퍼졌기 때문”이라면서도 “전주의 민심은 정세균 대표 체제를 탄핵한 것이며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도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과 관련,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적 무기력에 대한 호남 민심의 냉혹한 평가”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복당에 나서겠다는 정동영, 신건 당선자는 일정정도 시간을 가진 뒤 복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 건 후보와 무소속 연대를 통해 동반 당선된 정동영 당선자는 “당을 세신하겠다”며 복당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민주당은 상당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동영 당선자의 복당에 대해 “탈당이야 본인 마음이지만 복당은 당헌당규에 기준이 있다”며 “1년 이내에 복당은 허용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비주류 모임인 민주연대는 “당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대연합을 이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동영 후보의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복당에 나서겠다는 정동영, 신건 당선자는 일정정도 시간을 가진 뒤 복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호남 새 ‘맹주’ 되나

전주 덕진 재보선에서 위력 확인 ‘재기’ 성공

“전주에서는 정동영(DY)이 대통령이다.”

이번 4·29 재보선 전 전주의 일반적 여론이었다. 결국, 이번 전주 덕진, 완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정동영·신건 무소속 연대’가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이 같은 여론을 확인해줬다. 특히 DY는 정치 신인이나 다른 없는 신 후보를 데려다 불과 20여일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정치적 위력을 보여줬다.

사실 전주 덕진에서 DY의 당선은 민주당에서조차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완산갑은 상대적으로 선거준비기간이 짧았고 정치적 경험도 일천한 신 후보가 국회의원 출신의 민주당 이광철 후보에 완승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DY는 자신의 승리를 물론

권자에 접근, 조직력을 앞세운 민주당 바람을 잠재웠다.

이 같은 ‘DY 돌풍’ 앞에 선거 막판 불거진 신 건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재산축소 등 악재도 면해들지 않았고 결국 정·신 무소속 후보가 원승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DY는 정치적 고향인 전주에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함으로써 내년 전북의 지방선거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DY의 전주에서의 재기가 과거처럼 민주당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위치로의 재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북과는 달리 광주·전남지역에서 DY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패배로 DY에 대한 민심이 아니라 정세균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적발된 사람은 노저지주 쇼트힐에 거주하는 윤주완(68)씨로, 국방

DJ, 4일 中 방문

中 지도자와 회동



김 대중
전 대통령
이 오는
4~8일 중
국 베이징
을 방문,
중국 고위
지도자들과 회동하고 베이징대학
에서 강연을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중국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중국의 각계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6자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한반도·동북아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갖는다.

또 베이징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 등을 내용으로 강연한다.

이번 중국 방문은 2004년 6월 베이징, 지난해 10월 선양에 이은 퇴임 후 세 번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돼지 인플루엔자(SI) 감염을 우려하는 영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멕시코 칸쿤 국제공항에서 멕시코를 떠나기 위해 항공사 카운터 앞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 한국기업 가족들 철수

WHO, 경보 5단계 격상…사망자 177명

정부,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키로

돼지 인플루엔자(SI) 조사-검사 대상자가 다시 16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까지 SI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41명이며, 이 가운데 본부를 통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멕시코 현지에 생산 및 판매 법인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도 경보단계 5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대응조치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는 멕시코시티와 공장이 있는 푸에블라주 산 루이스 포토시(SLP)주 등에 거주하는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 신설 공사가 진행 중인 탑파코 공장의 경우에는 철수 지역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SI의 대유행 위험단계를 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대책본부를 통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스위스-네덜란드에서도 첫 감염환자가 확인됐고 일본에서는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 1명이 SI 양성 반응을 보여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인도에서도 첫 의심환자가 발견됐다.

멕시코에서는 17명이 SI로 추가 사망해 미국 1명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는 177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한국의 러시아제 로켓기술·장비 획득 도우려다…

한국계 미국인, 美 검찰에 피소

한국이 러시아제 로켓 기술 및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도우려던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다고 A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적발된 사람은 노저지주 쇼트힐에 거주하는 윤주완(68)씨로, 국방

및 미사일 등 금지 품목의 수출 및 중개를 시도하고 미국 정부에 무기 중개 등록도 하지 않은 혐의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윤 씨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공항에서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 및 국방부 수사관들의 정보원 역할을 해온 전직

무기밀매상을 만난 직후 체포됐다.

미 수사당국이 확보한 윤 씨의 이메일 및 통화 감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개발한 ‘RD-180’이라는 로켓 추진 시스템을 한국이 러시아 채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윤 씨가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켓 추진 시스템은 ‘한국 위성발사체 2’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러시아 기술을 활용해 로켓을 발사했으나 러시아측은 한국의 2차 위성발사 때는 협력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수완지구

상가임대 및 분양

• 수완최고상업지역 버스정류장 옆

월드포리자(1~5층) 3월말 준공 금은, 안경점, 브랜드 의류, 편의점, 독서실, 약국, 명원, 한의원, 학원, 독서실(이비인후과, 입점 확정)

• 매인도로 35×12×6m 버스정류장 옆 5층건물

송원프라자(즉시 입주 가능)

식당, 편의점, 한의원, 학원, 독서실

• 토지 증개 및 개발 컨설팅

• 수완 상업지역 최고요지 최저가 매물 더량 확보

개발 상담 및 토지증개는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 959-1033, 019-608-3372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컨설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 973-9174, 016-757-8800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물가능 한도

수완지구 상업용지 용지

주유소

골프연습장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불광광장지 2900평 2600평 4900평

수원동 4차지점 1200평 1800평

부전본촌동 850평

상가임대 및 분양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광주·전남권 토지